

허 민 (광운대학교)

로그 척도

17세기 초 네이피어가 발견한 로그는 계산 도구로의 가치는 사라졌지만, 함수로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다.

여기서는 물리적인 압박에 의한 고통, 빛의 밝기와 소리의 세기에 대한 인식 등 생리적인 반응을 설명하는 베버-페히너의 법칙을 통하여 로그 함수의 필요성과 로그 척도의 정당성을 알아본다.

그리고 로그 척도의 예로 소리의 데시벨, 별의 등급, 지진의 규모, 수소 이온 지수 등을 소개하고, 교육적 용도를 알아본다.